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6)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금강이 이어지는 '반야'를 가리킨다는 거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반야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금강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다른 견해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해능 스님은 이 '금강'이 가리키는 바가 '반야'라기보다 오히려 '불성'이라고 보고 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금강불성(金剛佛性)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性의 보물 가운데 지혜 공장(智慧 工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겠습니다. 근본적인 반론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불성의 '견립'이 불교용어로 상견(常見)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본시 무아(無我)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자성(自性)이라는 그릇된 사고성을 부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또 뒷문으로 불성(佛性)이라는 것을 끌어 들여 불교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는냐는 힐난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각하게 전개되어 왔고, 또 일본에서 특히 비판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금강이 불성을 가리킨다?

아, 이 새로운 견해에, 또 분별심을 내서 시비를 가리려는 분이 있군요. 둘은 서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는 불성쪽이 반야보다 더 크고 포괄적이며 적극적 선택인 듯 싶습니다. 포괄적이라 함은, 반야가 불성의 한 부분적 '기능'이라는 뜻에서이고, 적극적이라 함은, 반야가 '짜르느' 부정적 기능에 주목한 말인데 비해, 불성은 자체 내의 '영속적'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5세기 중엽 중관학과 안에서 프라상기카와 스바탄트리카가 서로 갈라져, 인간의 이기적 판단과 상대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인가' 적극적 가치가 남아있느냐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혔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연 스바탄트리카의 견해에, 즉 인간의 삶에 희망이 있으며, 불교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편에 기울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는 불교와 가장 멀리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해능의 불성론(佛性論)이나, <대승기신론>의 적극적 희망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 말씀인데, 그동안 너무 불교가 '부정적' 인사로 도배되어 있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절을 꺼리고 어려워하고 있다는데, 불교의 말과 절의 분위기에서

는 떨어내고, 순수 금강만 남기기를 바랍니다. (所冀, 學者同見 鑛中金性 以智慧火銷煉 鑛去金存.) 스님은 인간 내부에 견고한 불성이,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불성을 위협하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산양의 뿔, 영양각입니다. 스님은 "영양각이 금강을 깨듯이, 번뇌가 불성을 '흐트린다(亂)'고 하십니다. 아마도 해능 스님은, 금강이란 물건을 다

을 직접 들어봅시다. 마음의 기적, 그 불가사의 '왜'이 경의 이름에 '금강반야'라함'을 붙였는가. 금강은 세상에서 귀한 보물이다. 그 특성은 지극히 날카로와 온갖 물건을 다 부순다. 금강이 지극히 견고하다고는 하나 영양각이 깎을 수 있다. 여기 금강은 '불성'에, 그리고 영양각은 '번뇌'에 비유된다. 요컨대 금강이 비록 견고하나 영양각이 능

을 능가한다. 喻佛性, 辨羊角喻煩惱, 金剛堅剛, 辨羊角能碎, 佛性雖堅, 煩惱能亂, 煩惱雖堅, 般若智能破, 辨羊角雖堅, 寶鐵能壞, 悟此理者, 了然見性.) 역시 번뇌도 단단하고 불성도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성이 더 단단합니다. 앞에서 말하듯이, 번뇌는 반야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때로 영구히, 부서질 수 있지만, 불성은 번뇌에 의해 교란되고 흐트러지긴 하지만, 영영 바수어지거나 사그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108번뇌, 살아 견뎌야 할 고해(苦海)의 세상은 이리도 팍팍하고 끈질겨,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아도 않는 불성이 무시이래의 번뇌의 침범과 교란 속에서도 끝끝내 자야(自若)하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불교, 희망의 목소리에 더 큰 무게를

느끼는 어두운 색조가 한창 따뜻하고 통통 튀는 그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반야의 칼날 vs 불성의 불바람

저는, 어느 편이나 하면, '불성'쪽에 기울입니다. 실제화할 위험이 반야보다는 더 커보입니다. 반야가 갖고 있는 차가운 칼날의 이미지보다, 자기 존재의 긍정과 이웃을 향한 공동체적 자비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불성쪽이 훨씬 낫고 눈물겹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해능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의 불로 제련하여, 세상에 다시 없는 부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 수행자들이, 절광 더미 속에 금강이 있는 줄을 알아, 지혜의 불로 녹이고 제련하여, 잡된 쇠찌꺼



아몬드가 아니라, 금중최강(金中最剛), 즉 '강철' 같은 것으로 생각할 듯 합니다. 대개 집승의 뿔은 단단하여 한약재로 쓸 때도 톱으로 썰어 쓴다고 하는데, 이 산양의 뿔은 그 중 단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강을 깨는 이 영양각은 다시 빈철(濱鐵)에 맞으면 부서집니다. 즉, 그렇게 단단하고 뿌리깊은 번뇌도 반야 지혜의 칼에 부서지고 그 불길에 녹는다는 말씀입니다. 스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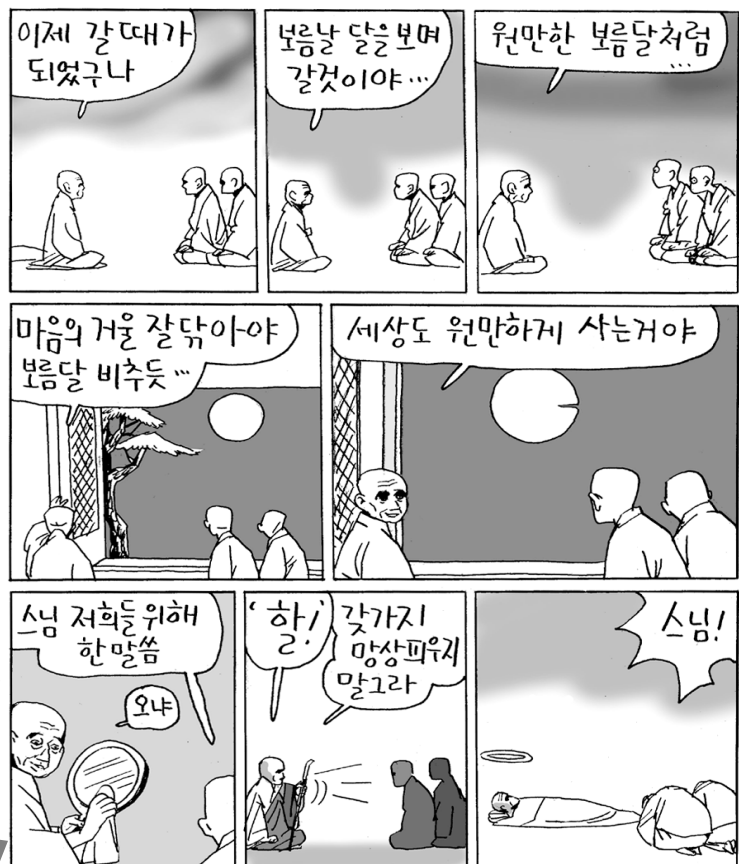
히 부수고,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가 능히 교란시킬 수 있다. 번뇌가 비록 견고하지만, 그러나 반야지가 능히 깨부술 수 있다. 이는 영양각이 비록 단단하나 빈철이 깨부술 수 있는 것과 같다. (셋의 서로 물린) 이치를 깨닫는 자, 불성을 선포하여 이해했다 하겠다. (如來所說金剛般若波羅蜜, 與法爲名, 其意謂何, 以金剛世界之寶, 其性猛烈, 能壞諸物, 金雖至堅, 辨羊角能壞, 金剛

주장사파라...

석우 스님의 '보름달'



조태호



석우 스님 (1875~1958): 경남 김해 생. 금강산 장안사에서 연담 스님에게 출가. 영원암에서 20년 수행 뒤 칠불암, 다솔사에서 정진. 남해 해관암 창건. 1955년 조계종 중직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화두 드는 구체적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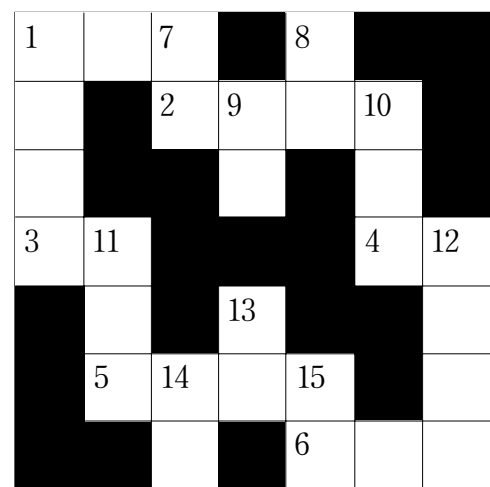
화두를 드는 방법에 대해 여러 스님들께 여쭙어 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ID '진공')

답1: 화두 참구는 사교나 사유 논리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교나 사유 논리로서 화두를 드는 것은 그 화두를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답이 없는 '옴나반메혹'이란 화두를 들었습니다. (현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을 볼 수 있는 진언인 '옴나반메혹' 여기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도대체 '옴나반메혹'이 무엇일까 하고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비가 오는 창에서 촛불을 켜 놓고 참구를 하고 있는데 홀연히 눈이 열리면 즉사 삼천대천세계의 그 정묘한 옴나반메혹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만 즉사 불자님이 화두의 세계는 이렇구나 하고 사유나 상상을 할까봐 여기서 그만 두겠습니다. 무식하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그 답을 스스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절대 상상이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법설)

답2: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는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장 승담 스님의 말씀이 간명합니다. 승담 스님은 화두참선을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옮겨 지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덧붙여 '이 뭇고'를 참구해야 하며, 앉아 서나 서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 뭇고'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스님의 말씀입니다.

"화두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 관한 것은 물론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다 놓아 버려야 해요. 속이 상할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성이 날 때나 외롭고 슬플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날려고 하자마자 탁 숨을 단전까지 깊이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뭇고',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이마셔서 내쉬면서 '이 뭇고', 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던 가슴이 속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참니를 찾는 공부로 나아가니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짜증 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이 뭇고'만 추켜들면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이라 저절로 없어지고 화두가 순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참나에 통의 밀구멍 빠지듯 툭 터져서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그때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확찰대 오를 했으면 공부해 나가는 법을 지도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푸른바다)

불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 1. 전남 영광 불갑산에 있는 절, 대웅전이 보물 830호임
2. 뜻을 표하는 문자 3. 지구의 자전축
4. 책을 넣어두는 장 5. 기운이 다해 몸을 가누지 못할 6. 화염중의 소의경전.

세로

- 1. 물지 않아도 알 수 있음 7.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 8. 물어보는 말, 답(窩)의 상대적 의미 9. 믿지 못하는 마음 10.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 11. 유성기의 다른 말 12. 동국역경원이 처음으로 번역 출간한 한글대장경의 경명 13. 땅속의 물줄기 14. 불이면 균형제로 유명한 지역 15. 불을 끄